

아일랜드 불교, 16세기에서 시원 찾아야

로렌스 콕스 교수 『Buddhism and Ireland』서 밝혀 스스로 선택한 '자생 불교'... 2011년 기준 불교도 8,703명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시인)나 제임스 조이스(소설가) 같은 세계적인 문인들을 조명할 때, 잠깐 언급되는 '아일랜드와 불교' 그러나 아일랜드 불교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각종 백과사전류에서는 유럽 불교를 '이민자 중심의 불교'로 기술하고 있지만, 아일랜드의 불교도 과연 그럴까.

(아일랜드 타임즈(The Irish Times))지는 16일 로렌스 콕스(Laurence Cox ·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Maynooth) 교수의 연구서 <Buddhism and Ireland>를 인용, "아일랜드의 불교는 유럽 다른 나라의 불교와는 다르게 출발했다"고 언급하고, "현재도 이민자 중심의 불교가 아닌 아일랜드인 중심의 불교 공동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콕스 교수에 따르면 16세기를 기점으로 아일랜드 외교관들과 선원들의 사적인 기록과 예수회 소속 아일랜드 수사들이 주고 받은 편지에서 불교를 언급한 대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1871년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조사에도 '불교'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최초의 공식적인 언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밖에도 아시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은 각 나라의 중간 관리자 아일랜드 사람을 적극 파견했다는 사료도 많다.

(아일랜드 타임즈)지는 콕스 교수의 이

같은 설명에 주목, "아일랜드 불교는 이주민 중심의 불교가 아닌 아일랜드인 스스로 교화 과정을 밟은 불교"라는 점을 강조하고, "당시 아시아로 건너가 불교를 체험했던 외교관, 선원, 수사들이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와 불교의 사유를 전하면서 아일랜드의 불교가 태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일랜드에서 불교는 기독교보다 더욱 오래된 종교이자,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적인 종교'로 자리매김

세속화 되지 않은 불교 명상 인기 박물관에서는 불교 전시 열리고 광고 카피는 불교 경전 자주 인용

해왔다"고 덧붙인 (아일랜드 타임즈)지는 "아일랜드 인기 스포츠인 경마에 등장하는 말 이름을 불교 용어로 짓고, 광고·영화·소설 등에서도 자주 불교 경전 구절이 인용되며, 박물관 전시실에서 불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회가 마련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아일랜드 불교는 이제 아일랜드인 개개인에게 다가서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이스의 대표작 <율리시스>의 결말에 나오는 '몰리 블룸(Molly Bloom)의 독백'의 울림은 더욱 커져가고, 아일랜드의 국립



벨파스트(Belfast) 지역에 설립된 티베트 명상 센터에서 벨파스트 거리에서 진행한 거리 명상 모습

박물관 입구에 봉안된 미얀마 불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아일랜드 타임즈)지에 따르면, 동시대 아일랜드 불교는 '명상', '의식', '독서', '관람'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도심에 세워진 '불교 명상 센터'에서 삼삼오오 모여 명상을 배우며 실수하는가하면, 불자로서 불교 의식에 동참하며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일랜드에서는 불교와 기독교 모두 명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아일랜드 사람들은 불교 명상에 더 끌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타임즈)지는 "불교의 명상은 세속화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덕목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풀이했다.

또한 "아일랜드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박물관 등에서 불교미술품을 관람하면서도 신심의 영역을 키운다"고 지적한 (아일랜드 타임즈)지는 "이들 중에는 불교 의식을 재현하는 소규모 모임을 결성, 운영하는 이들도 있다"고 덧붙이고, "현재 이민자 불교 공동체 역시 '불교 의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호 교류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들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 아일랜드 불교는 급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아일랜드 인구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불교인구는 8,7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가 재즈 인생에 영감이 됐죠"

재즈피아니스트 허비 행콕, 美 하버드서 재즈와 불교 강의



재즈 거장 허비 행콕(Herbie Hancock)이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시학 교수로 임용됐다. 행콕은 불학기부터 불교와 재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워싱턴포스트, 브렛 하트먼)

불교신자로 알려진 재즈피아노의 거장 허비 행콕(Herbie Hancock)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명예교수가 된다. 이번 봄 학기부터 시학(詩學) 교수(Professor of Poetry)로 교단에 설 행콕은 재즈윤리학(Ethics of Jazz)이라는 과목으로 6차례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

올해 74살이 되는 행콕은 재즈와 불교의 조화로움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 줄 예정이다.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의는 프로페셔널한 전문 음악가로서의 경험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는 "나 자신만의 온전한 경험을 살려 불교와 창조성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는 나를 표현하는 흥미로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콕은 "재즈의 핵심은 인간의 영혼을 완성시켜주고 자기 표현의 새로운 길을 찾게 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불교를 믿음으로써 매일의 삶이 변화된다는 그는 이런 측면에서 불교와 재즈는 서로 상통한다고 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왔다는 것은 그가 줄곧 이야기해온 바다.

허비 행콕은 11살 때 이미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을 만큼 피아노에 있어 천재적인 인물이다.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 마이클 데이비스 퀸텟(5인조 연주 그룹)을 거쳐 재즈 락 퓨전밴드인 헤드헌터와 VSOP에서 활동하며 음악적 지평을 넓혔다. 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마법같은 연주"였다고 회상한 베이스리스트 버스터 윌리엄스의 즉흥연주를 듣게 된 행콕은 윌리엄스가 당시 열혈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행콕 또한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후 불교는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불교가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불교 수행을 하며 몇 가지 체득한 것이 있다. 그 중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사실은 내가 뮤지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음악은 내가 하는 일일 뿐이지 음악가로서의 허비 행콕은 내가 아니다. 진정한 나를 정의한다면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인간이 된다는 의미는 뮤지션이 된다는 것, 아버지, 남편, 이웃, 시민, 아프리카계 미

염불에 영감받은 즉흥 연주에 감동 불교수행 통해 창조적 음악 선보여 재즈와 불교의 본질 닮아 있어

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아우른다. 이러한 모든 관계는 내가 존재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행콕이 지난 반 세기 동안 음악 역사에 새긴 공로는 최고의 아티스트에게만 수여하는 그래미상을 총 14번이나 받았다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강의를 개설한 호미 바하바 교수는 "허비 행콕을 하버드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가 음악사에 세운 공로는 예술이 우리의 삶을 깨우는 새로운 방식을 알렸다는 데 있다"고 하버드로 행콕을 초청한 이유를 밝혔다.

주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해온 이들을 명예교수로 위촉했던 하버드대의 역대 시학 교수로는 금세기 최고 시인으로 꼽히는 T.S 엘리엇, 로버트 프로스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과 작곡가 존 케이지 등이 있다.

행콕은 지난 해 11월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배현진기자

화마로 소실된 티베트 불교 유산

중 원남성 '고대 불교 마을' · 쓰촨성 '불교 아카데미' 화마로 피해 입어



연이어 중국에서 일어난 화재. 대상지는 공교롭게도 불교 관련 지역이다.



중국의 원남성과 쓰촨성에서 각각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티베트 불교 유산이 크게 훼손됐다. (인도 타임즈)는 12일 "중국 원남성 남

서부에 위치한 샹그릴라(Shangri-La)의 고대 불교 마을이 소실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고대 불교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9시간 동안 240여 채의 티베트 가옥을 태우고 진화했지만, 가옥 대부분 고대 티베트 건축 방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듀크중(Dukezong)', 일명 '달의 도시(Town of the Moon)'로 불리는 이곳은 해발 3200여 미터에 위치한 고대 티베트 불교 마을로 무려 130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원남성 지방정부는 "이번 화재의 원인에 대해 '방화'나 '파괴'를 배제하고 있다"며 "마을의 좁은 골목길과 자갈길 등이 조속한 화재 진압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티베트 자치구와 중국 쓰촨

성 사이의 까르제(Kardze) 지역에서 10일 화재가 발생해 '티베트 불교 연구소'의 연구 동과 기숙동 100여 채가 소실됐다"고 (자유 아시아 라디오(Radio Free Asia, 이하 RFA))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 누전이나 램프 과열로 10일 오후 8시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화재로 불교 아카데미의 주요 강당인 라롱 갈(Larung Gar) 건물 등 연구 및 주거동 100여 채를 태웠다.

쓰촨성 지방정부는 "쓰촨성 경찰과 구조대 450여 명을 헬기 등으로 투입했으나, 대부분의 건물들이 목재로 지어져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쓰촨성 지방정부는 "2명의 비구니 스님이 화상을 입고 인근 도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뿐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화재가 발생한 까르제 지역은 해발 4,000여 미터에 위치한 티베트 불교계 최대 규모의 불교 아카데미로, 1980년 이후 크게 번성해 현재 1,000여 명의 스님들이 티베트 불교 전통에 따른 경율론 삼장을 배우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